

포도나무 자람새, 간편하게 판단 가능

농진청, 반원 모양 홈 파진 수세진단용 전정가위 개발

포도 재배농가에서 꽃떨이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나무 자람새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객관적으로 포도 나무 자람새(수세)를 진단할 수 있도록 전정가위에 반원 모양의 홈이 파진 수세진단용 전정가위를 개발했다.

반원 모양의 홈의 직경이 캠벨얼리 품종은 9.0mm, 거봉계 무핵 재배 품종은 12.0mm이다. 이 전정가위는 실용신안 심용실안을 출원했으며 관련 산업체로 기술 이전을 통해 농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수세진단용 전정가위 사용법은 전정가위의 반원 홈을 열매가지(결과지)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마

디 사이에 넣는다.

반원 크기와 결과지의 굵기가 동일하면 적정 수세이고, 반원의 좌측 또는 우측이 남으면 수세가 약한 것이고, 열매가지가 꺾여서 들어나지 않으면 강한 수세다.

포도나무는 매년 생장해 강한 수세에 의한 생리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고, 반대로 수세가 약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조기낙엽 및 수확시기 지연 등의 관리 소홀로 발생된다.

수세가 강할 때는 슈이베기(간벌) 할 나무를 정해 베어버리고, 슈이베기로 생긴 빈 공간은 인접한 나무에서 자란 충실한 가지를 유인해 채운다. 이때 유인한 가지의 아랫부분이 갈라질 수 있으며

로 유인철선에 동글게 묶은 후 이듬해 3월 하순에 수평으로 유인한다.

포도나무의 수세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선 갈반병 및 노균병 등을 방제해 조기 낙엽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품종별 적정 수확기에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확 후에도 비가림시설 등에서는 7일 간격으로 충분히 관수해야 한다.

농가에선 보통 포도나무를 심을 때 수량 증대를 위해 나무 사이 간격을 좁게 해서 많이 심는다. 재식 3~4년까지는 송이가 잘 달리고 쉽게 재배할 수 있으나, 5~6년부터 좁은 나무 간 거리로 수세가 강해져 포도 알이 달리지 않은 꽃떨이 현상이 발생된다.

포도나무를 좁게 심으면 지상부로 양·수분은 계속적으로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좁은 나무 간 거리로 지상부의 가치가 생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돼 수세가 강해진다.

농가에서 꽃떨이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어도 수세를 진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없어 꽃떨이 현상에 의한 생산량 감소 피해 후 뒤늦게 수세 안정을 위해 간벌을 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박서준 농업연구사는 "포도나무 수세진단용 전정가위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수세 판단을 함으로써 꽃떨이현상 등의 생리장애 사전 방지로 생산량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적정 수세 유지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JB 팽빙수 Day' 행사 실시

전북은행노동조합, 무료 팽빙수 제공

전북은행노동조합은 지난 11일 본점 1층 로비에서 2017 시원한 여름 보내기 'JB 팽빙수 Day' 행사를 실시했다.

'JB 팽빙수 Day'는 전북은행 본점에서 근무 중인 전북은행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에게 무료로 팽빙수를 제공해 직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최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연일 지속된 폭염 속에서도 업무수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노동조합 집행본부 전원은 1인용 컵에 팽빙수를 담아 직원 500여명에게 직접 전달했고, 일선 영업점에는 '복 달인 치킨배달 서비스'를 통해 바쁜 업무 속에서도 잠시나마 직원들이 함께 달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전북은행 최강성 노조위원장은 "더운 날씨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이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는 기회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노동조합은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고객 서비스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북전주농협, 손해보험 성장률 전국 1위 달성

북전주농협이 지난 14일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상반기 특별추진 전국 우수농협'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북전주농협은 올 상반기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기보험, 일반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손해보험 부문에서 전년 대비 무려 1.748% 성장률을 보여 전국 1위 성장률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전국 10개 농·축협을 선발하

는데 전북도에서 유일하게 북전주농협이 우수 농·축협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유한기 조합장은 "전 직원이 똘똘 뭉쳐 합심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해 힘쓰고,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며 "특히 2017년은 상호금융 연도대상과 손해보험 연도대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일자리창출·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지원

중기청, 3000만원 이하 약식심사·금융 비용 인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39세 이하 청년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1,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창출'의 취지에 맞춰 고용을 직접 창출하거나,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청년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청가능하다.

일반보증보다 10%p 높은 98%의 보증비율로 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3,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특히, 일반 보증서담보대출 대비 약 0.3~0.4%p 인하된 2.8~3.3%의 금리에, 보증료율을 추가로 0.2%p 인하함에 따라 보증고객은 최대 0.6%p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던 저신용자(8~10등급)를 위한 추가적인 특례도 적용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신용 8~10등급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지원 기본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비율도 100%까지 상향해 은행을 통한 대출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3,0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도입하고, 금리,보증료 등 금융비용을 최대 0.6%p 인하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들이 빠르고 저렴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보증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 중앙회(☎1588-736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재용 기자

공정위, 추석 명절 체불 집중 단속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 집중 단속에 나섰다.

공정위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 기간에 발생하는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다음달 29일까지 운영한다.

중점점검 사항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인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 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이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권역별로 설치·운영된다. /안재용 기자

지역제한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전 본점 소재지 뒤야

지역제한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본점 소재지를 두도록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황주홍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본점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두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일부 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직전에 본점 소재지를 계속 바꾸면서 여러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해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사업자의 낙찰 기회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역제한 입찰참가 기준을 강화해 지역에 기반을 둔 법인 등의 낙찰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안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
|--|---|
| <p>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 <p>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p> |
|--|---|